

일상 속
우리 동네
이야기



김나연 김재은
김태희 손채원
아이다나
김서영 김지안
박세형 신윤솔
김아빈 유리우
이예인 이준서

센트럴파크에서 해돋이공원까지, 송도를 걷다.



인천해송중학교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차례

송도 퀘스트 깨기 투어	7
자연과의 조화, 미추홀공원	29
나비와 함께 하는 공원 탐험기	45
그림책 만들기를 마치며	64
마치며_교사 장순화	69

송도 퀘스트 7개기투어

글, 그림 김나연, 김재은, 김태희, 손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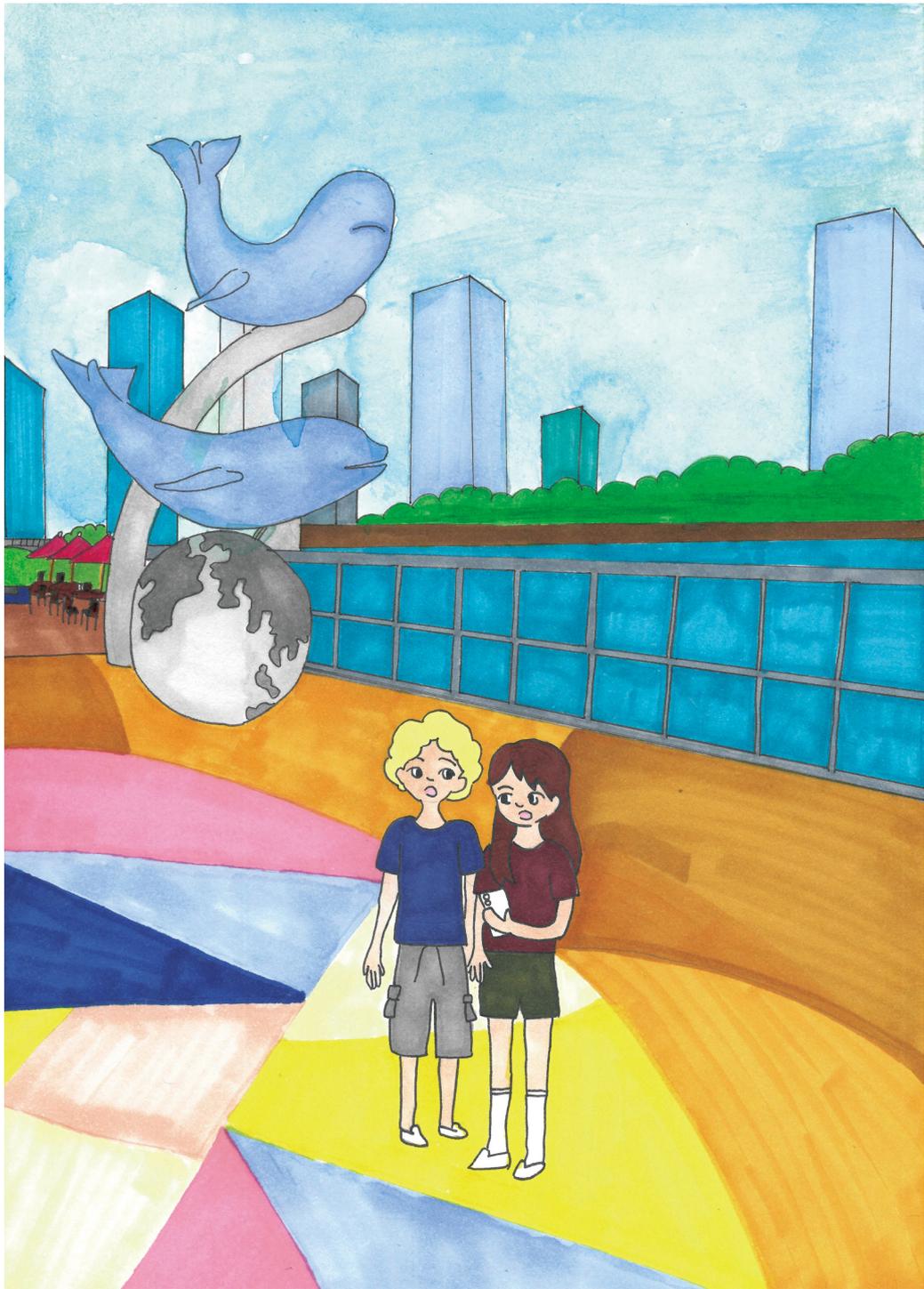
저기 멀리 캐리어를 끌고 오는 제임스네 가족이 보였어요.
“수아야,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워.”
나는 제임스의 짐을 들고 같이 수다를 떨며 공항을 구경하였어요.



차창 밖으로 <송도 퀘스트 깨기 투어>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내일 우리 이거 해볼까?”

“재밌겠다! 좋아! 벌써부터 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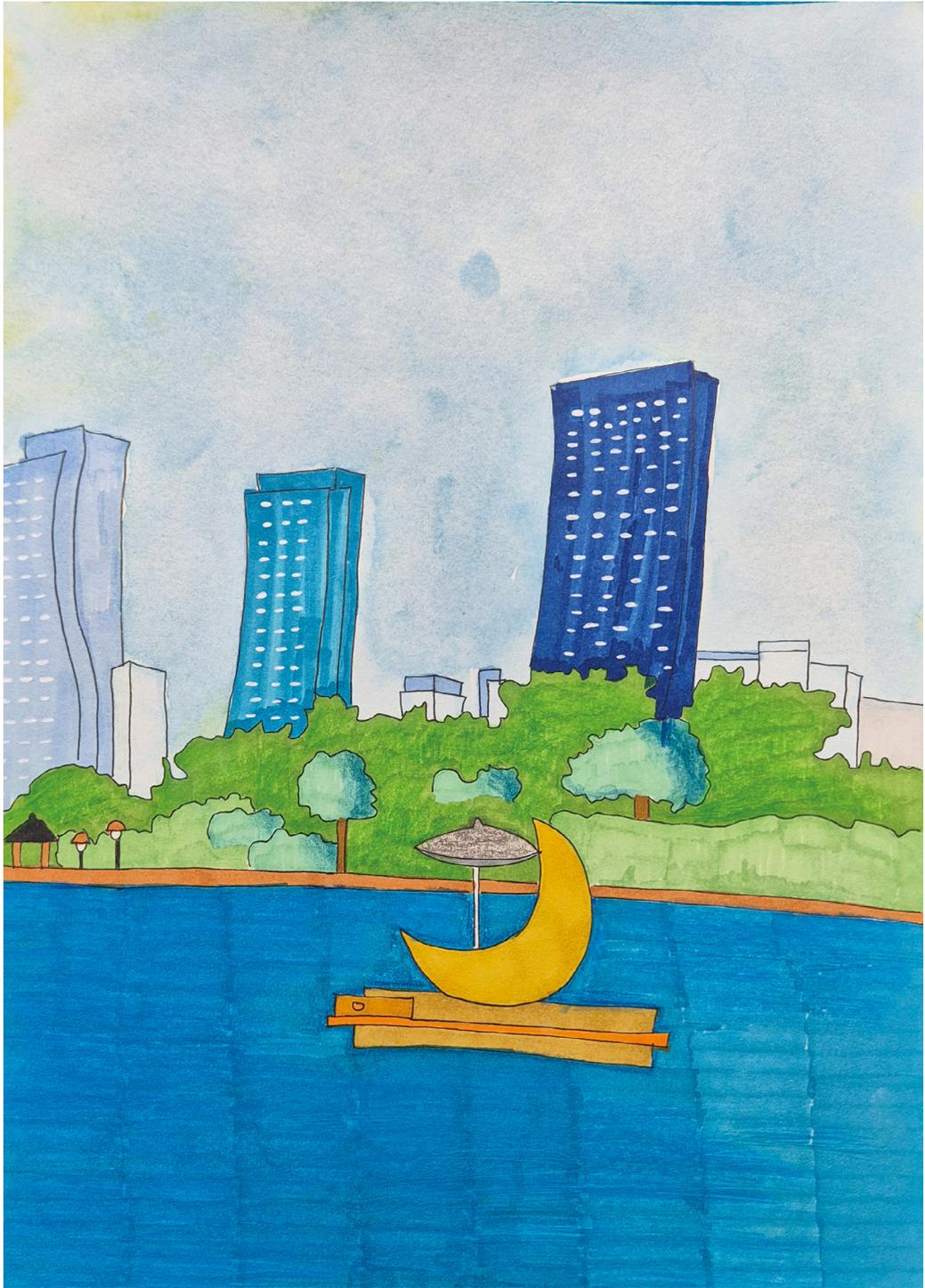


다음날, 우리는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게 센트럴파크로 향했어요.
테라스 정원에 도착하니 하늘로 날아오르듯 위를 향한 고래 동상이 우리
의 힘찬 퀘스트 해결의 시작을 응원하듯 햇빛과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퀘스트 시작을 알리는 문자가 왔어요.



우리 팀 번호는 20번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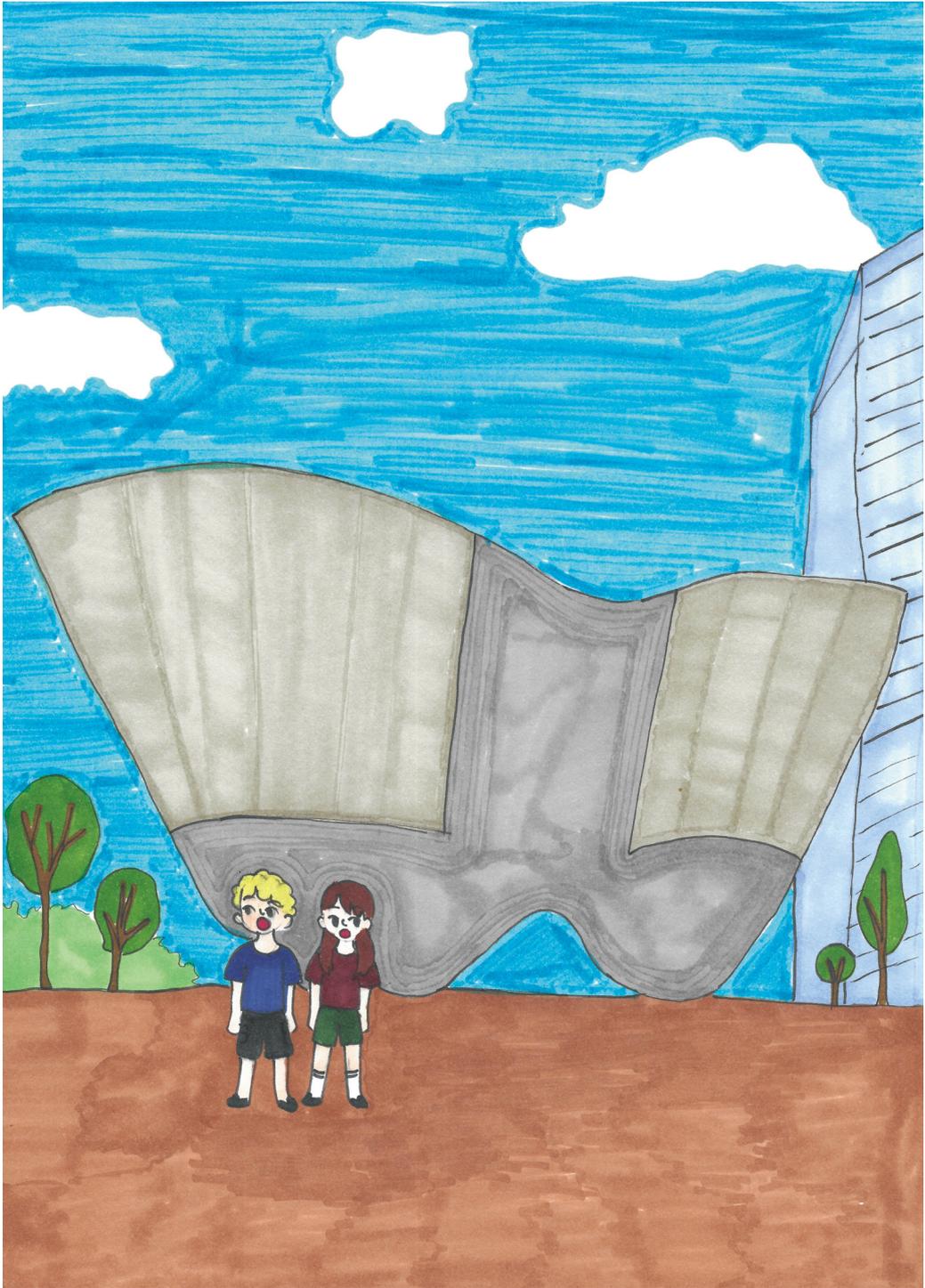
첫 번째 퀘스트는 수상택시를 타고 다음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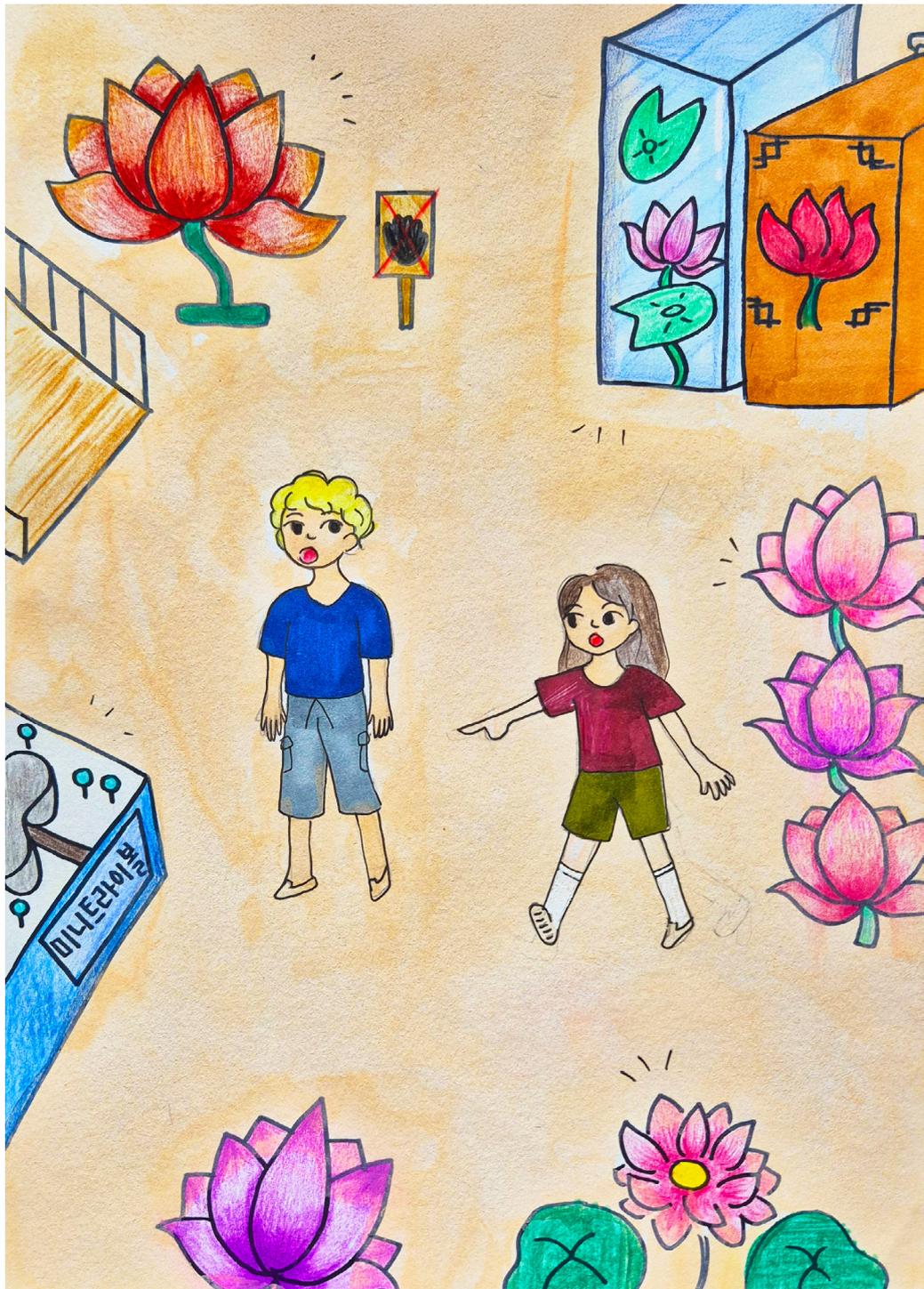
우리는 센트럴파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그때 새 퀘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트라이보울의 외관은 무엇을 형상화하고 있나요? 답을 빈칸에 입력하세요.’



“음, 그럼 우리 트라이보울 주변을 둘러볼까.”
우리는 한참 동안 밖에서 트라이보울을 관찰했어요.
“하,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나오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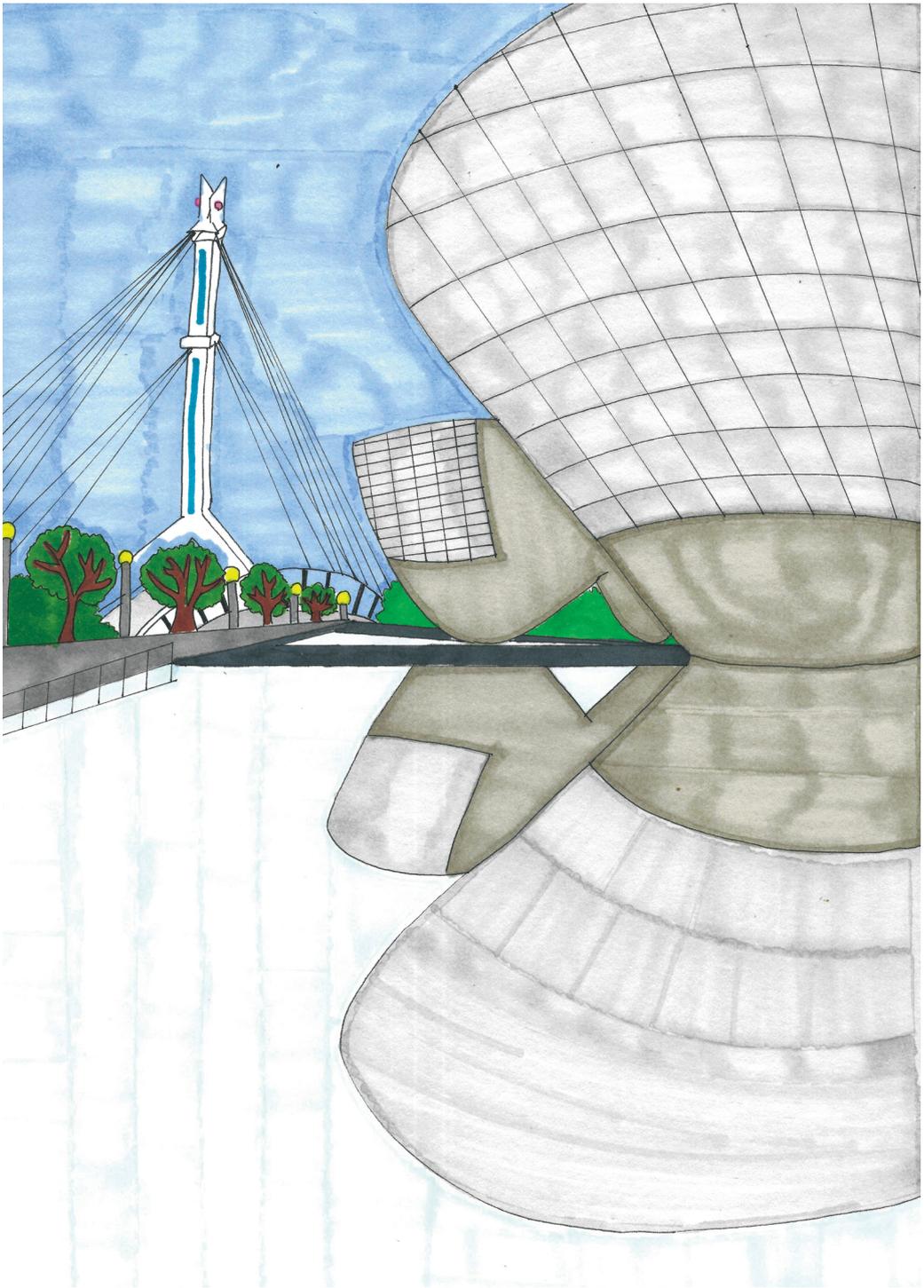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트라이보울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래”

“우와, 여기 생각보다 멋진데?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어.”

“전시장에 온통 연꽃으로 된 전시물이 많아.”



“설마, 퀴즈 정답이 연꽃일 수도 있어!”

“오, 나도 그런 것 같아. 트라이보울로 들어갈 때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 아래 긴 다리가 있었어. 다리를 건너면서 트라이보울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같았어.”



우리가 문자를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퀴즈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G타워입니다.'
“우리가 해냈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여기가 G타워구나.”
제임스는 G타워의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정적을 깨고 알람이 울렸어요.

다음 중 G타워에 없는 장소는 무엇일까요?

- (1) UN 기구
- (2) 전망대
- (3)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 (4) 솔바람 정원
- (5) 미디어아트

“다 장소가 그럴듯한데. 하나씩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제임스와 나는 G타워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G타워는 국제도시 송도를 전망하면서 국제적으로 통합될 앞날을 기대하는 뜻으로 세워져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에서 내렸어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글씨가 보였어요.

“여기가 송도의 역사와 발전을 알아볼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인가 봐.”

홍보관을 지나가보니 센트럴파크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제임스가 가까이 걸어오면서 눈이 커졌어요.

“와, 뷰가 엄청나다!”

“그치... 여기가 전망대인 것 같아.”

우리는 전망대에서 센트럴파크 전경을 함께 감상했어요.



제임스가 갑자기 나를 이끌고 어딘가로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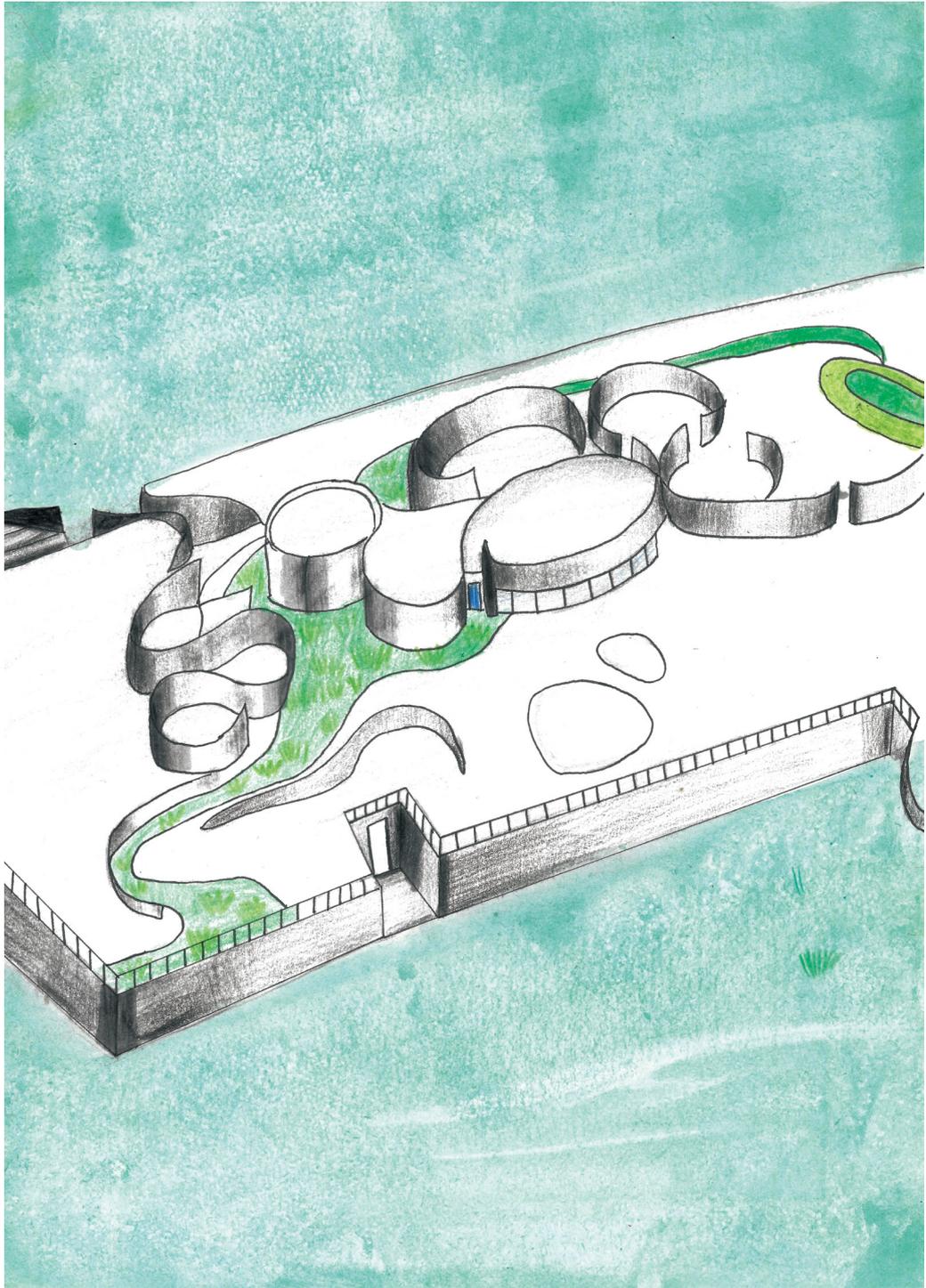
“여기 봐봐! 이거 분명히 ‘보기’ 중에 하나였던 미디어아트야!”
화려한 색깔의 꽃이랑 푸른 색깔의 나뭇잎들의 미디어아트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럼 이번 문제의 답은 (4) 솔바람 정원인 것 같아. 문제를
풀면서 G타워를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어서 재미있지 않았어?”
제임스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맞어! 특히 미디어아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 인간과 자연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형상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

때마침 ‘땡’하는 울림과 함께 새로운 문자가 왔어요.

“다음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야. 최근에 생겨서 나도 가보고
싶던 곳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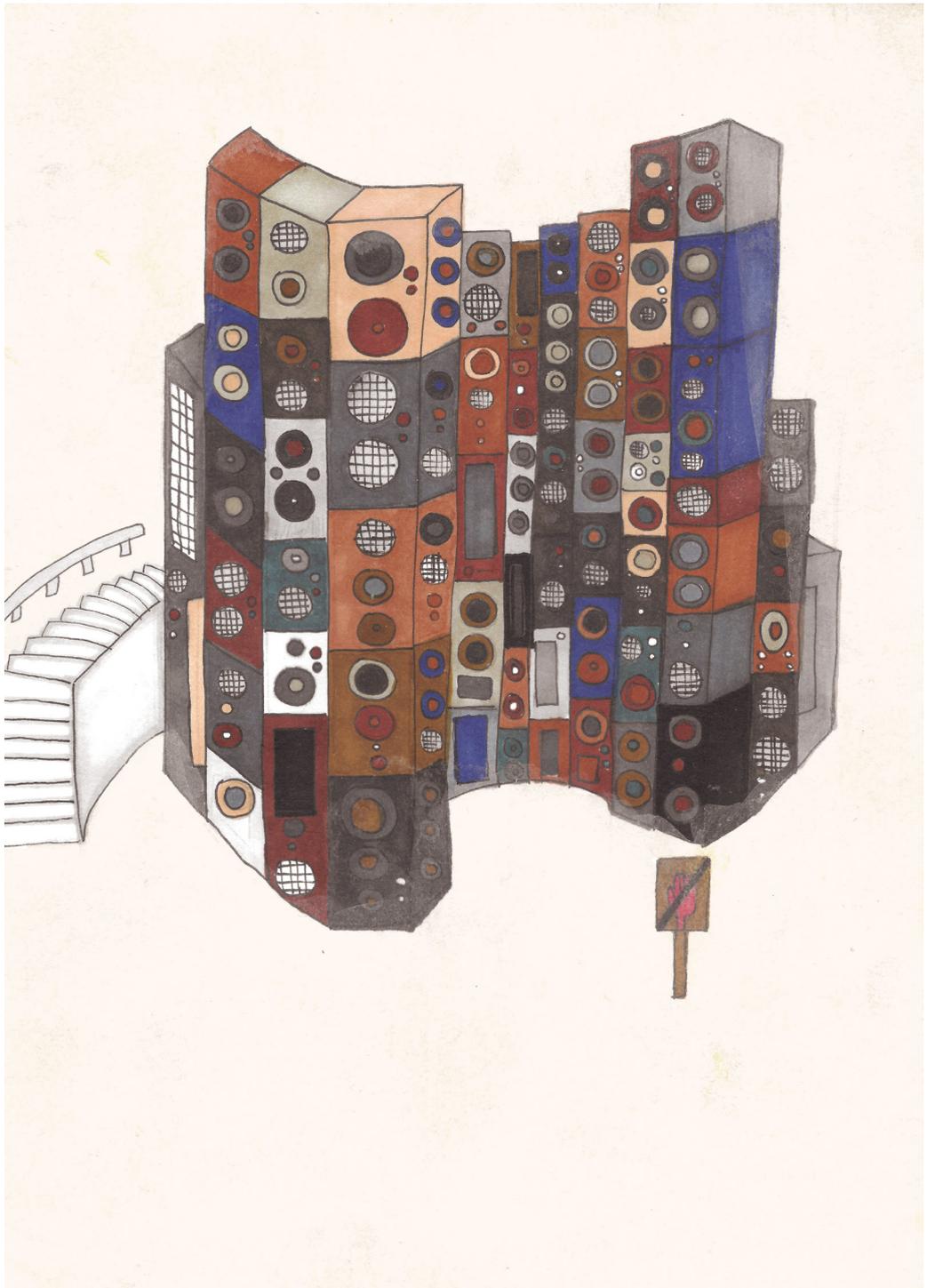


“여기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인가? 외관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그러게, 꼭 오래된 두루마리 같아!”

“그런데, 우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풀어야 할 퀘스트 문자가 아직 안 왔어?”

“아, 맞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니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반겼어요.
“우와, 이것 좀 봐. 전부 스피커네!”
“아마도 스피커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전하듯, 문자도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하고 싶었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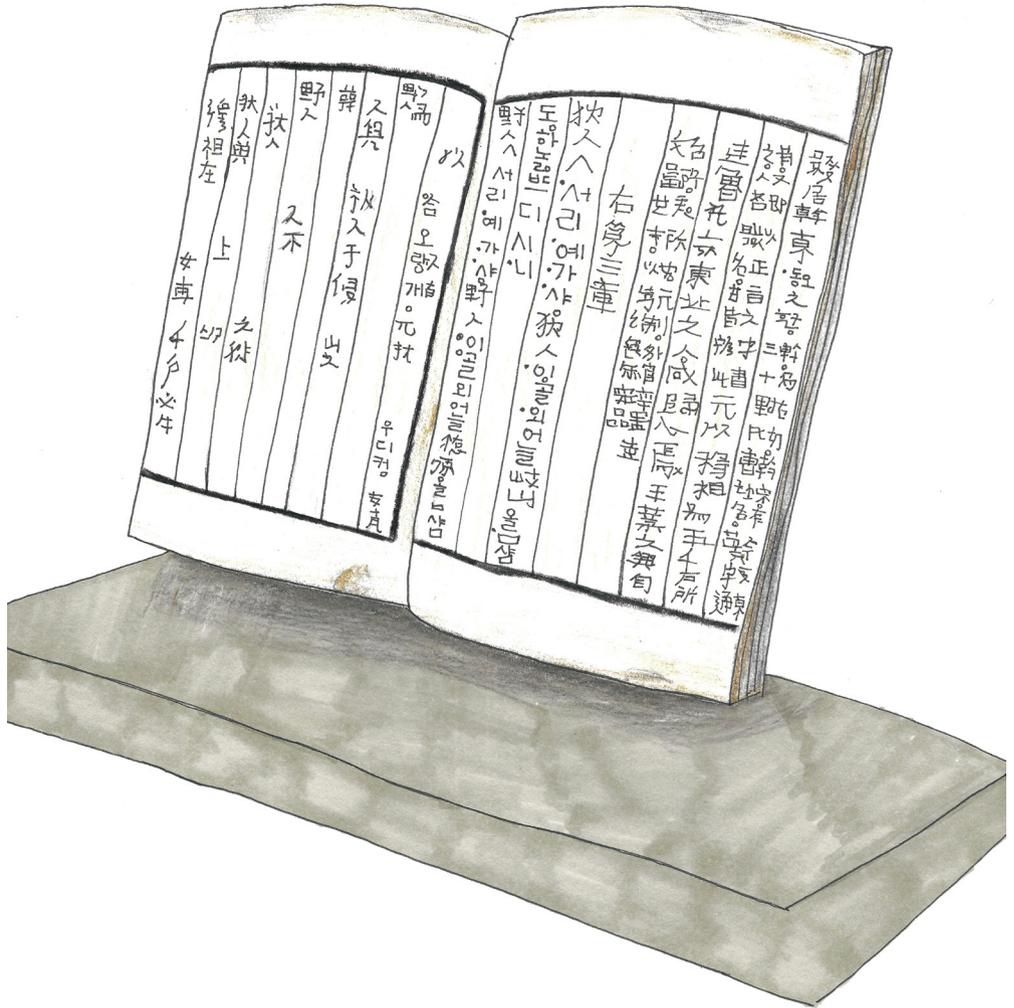


우리는 전시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이 석상 좀 봐. 엄청 거대해! 이 석상 이름이 뭘까?”

“이 상은 파나무와 1세의 하다드 상이야. 고대의 대표적인 풍우신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신상이래.”

“정말? 신에게 바치기 위해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든 거구나.”



박물관의 전시물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제임스가 앞서가서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수아! 이것 봐. 한글로 된 책이 있어!”

“아,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한글 창제의 원리와 배경, 목적 등을 설명한 책이야.”

“잠깐, 퀘스트의 답을 알 것 같아. 들어봐. 문화, 문명, 지식인 것 같아.”



우리는 퀘스트의 상품 지급소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팀 번호 20번인데 상품 받으러 왔어요.”

“아, 1등 팀이시군요!”

“네!”

나랑 제임스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상품이 정말 멋지다! 센트럴파크 엽서, 배지, 마그네티이라니! 송도의 특색이 드러나고 퀄리티도 좋아!”

“그럼 우리 인증샷 찍을까?”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찰칵!

자연과의 조화,

미추홀공원

글, 그림 아이다나, 김서영, 김지안, 박세형, 신윤솔





바람은 아주 시원하고 하늘은 청량한 푸른빛이었죠.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온 아이리스와 함께
미추홀공원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먼저 인화루에 갔어요.

“우와, 대단하다!”라며 사진을 찍는 아이리스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렸어요.

‘하긴 단청이 예쁘기는 하지.’



인화루에서 내려왔을 때, 소를 타며 피리를 부는 소년 동상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동상 앞 널따란 연못 테크길을 따라 걸으며 예쁜 수련으로 수놓아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아리스와 나는 갯벌문화관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서예 수업에 참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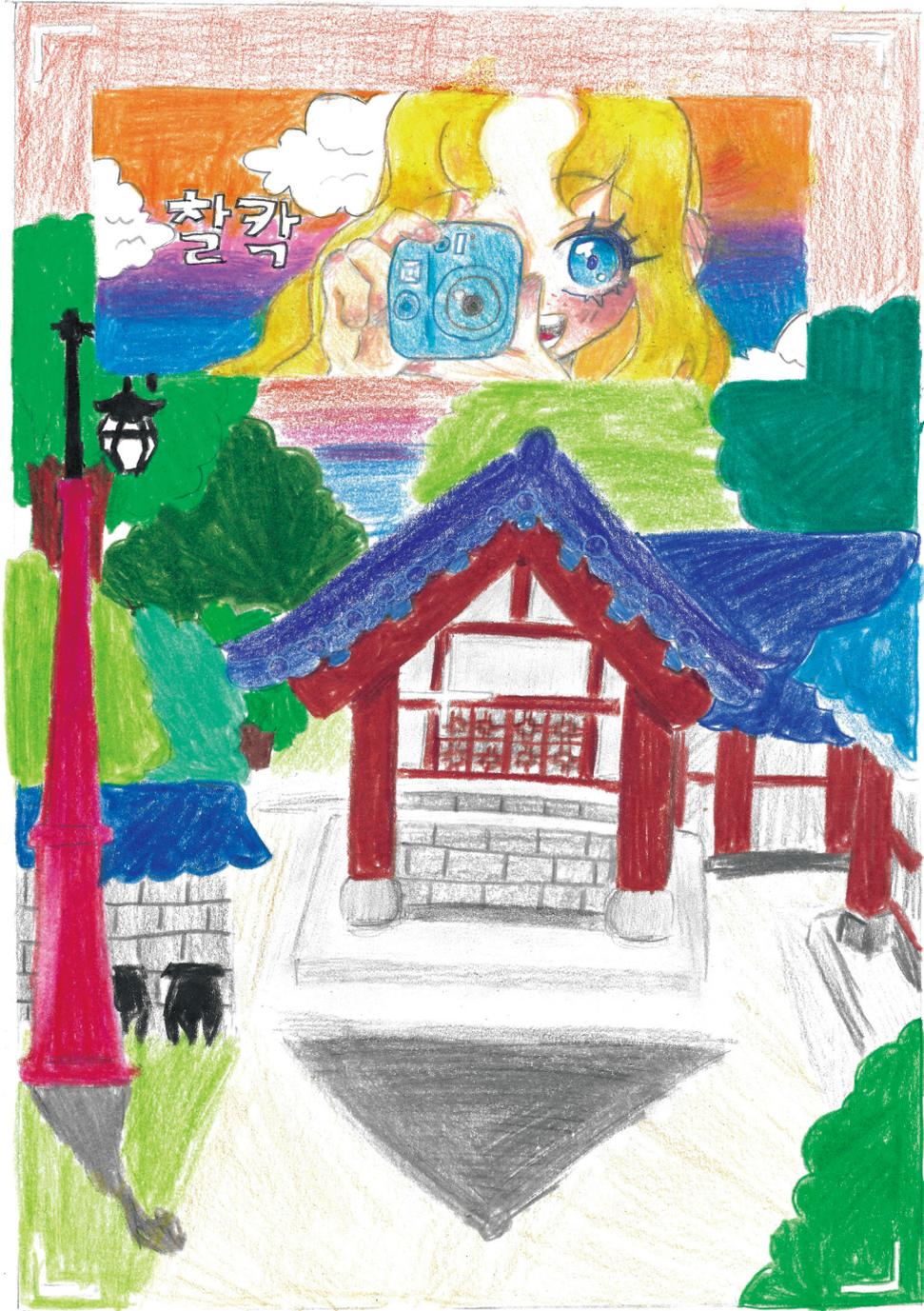
종이 위에 붓이 매끄럽게 지나가자 한 획이 그어졌어요.



수업 후 우리는 십이지신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쥐, 소, 호랑이, 토끼 등의 형상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나는 아이리스에게 우리는 같은 해에 태어나서 ‘용띠’라고 알려주었더니
매우 신기해했어요.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다례원으로 갔어요.

아이리스는 한옥과 장독대, 물레방아 등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CAMERA
PLAY ▶
00:02:20

VCR TAPE
IPHONE
[Battery icon]



아이리스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면 저와도 한 장을 찍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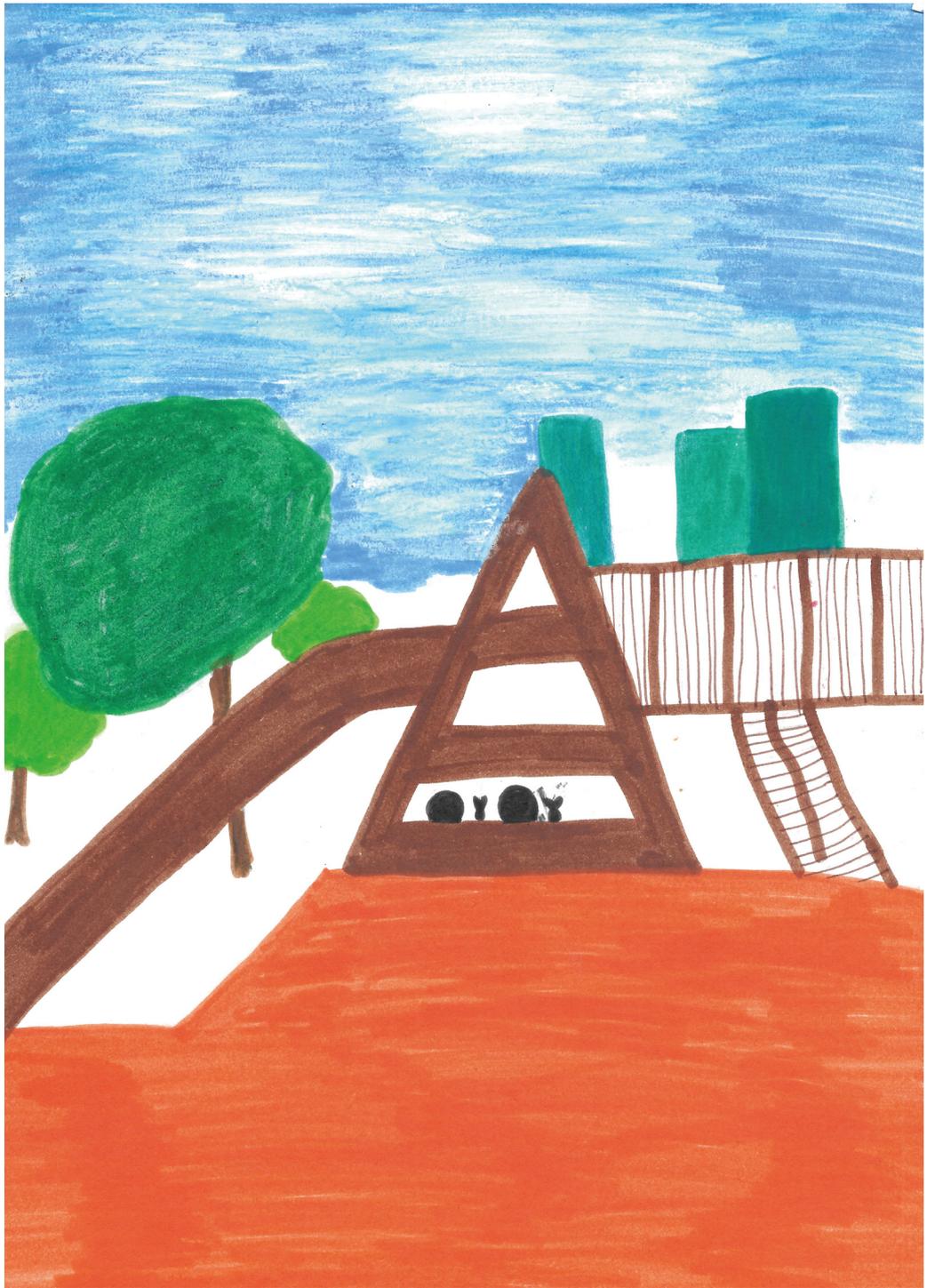


산책길을 돌다가 아이리스가 “어, 저건 뭐야?” 하길래 고개를 돌려 바라 보니 황톳길이 보였어요.

“황톳길이야. 저기를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



우리는 활짝 웃으며 황톳길을 걸었어요.
바람에 발밑으로 낙엽이 떨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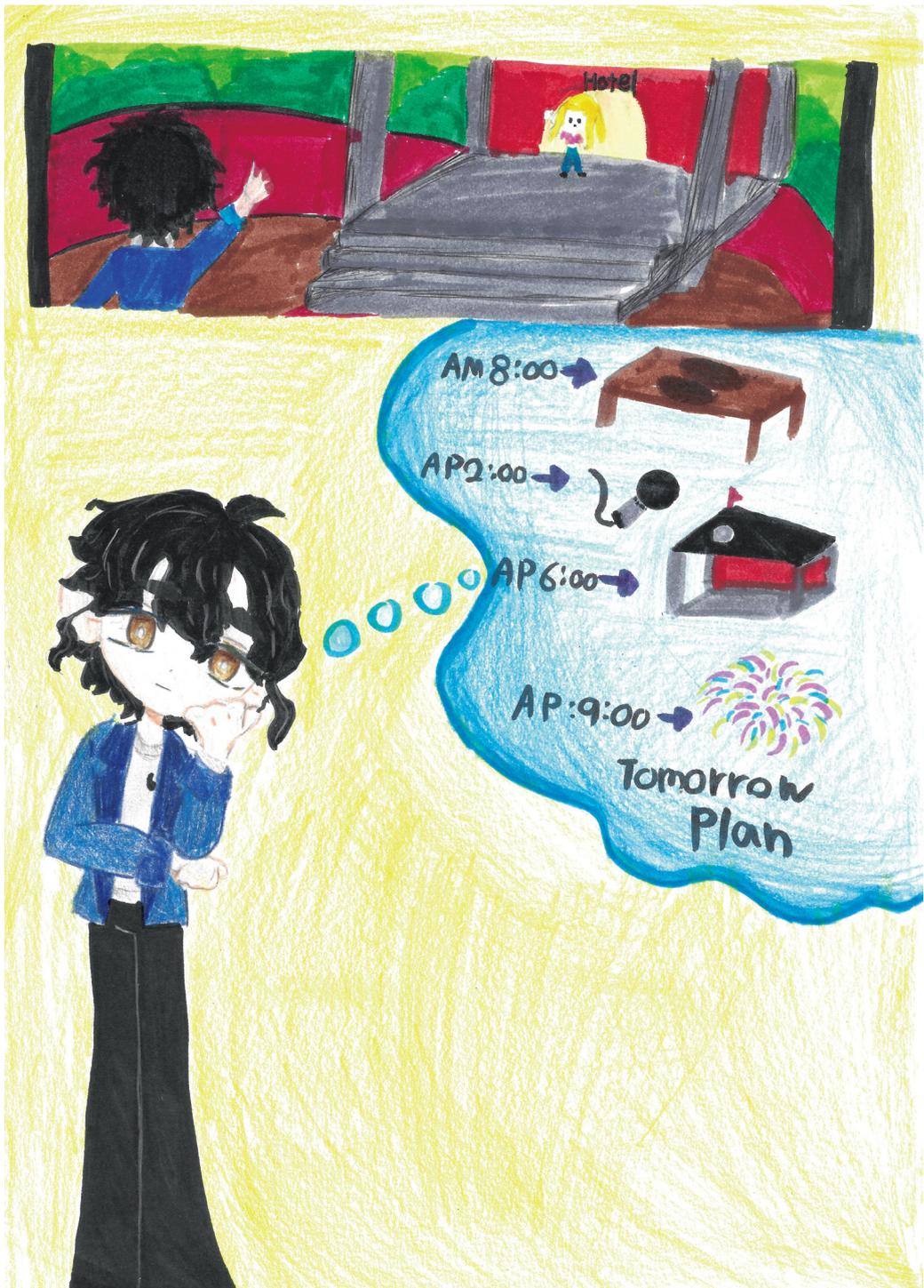


나와 아이리스는 놀이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황톳길의 끝이자 시작인 곳에서 발을 씻고 휴대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어요.

어느덧 6시 30분이 지나고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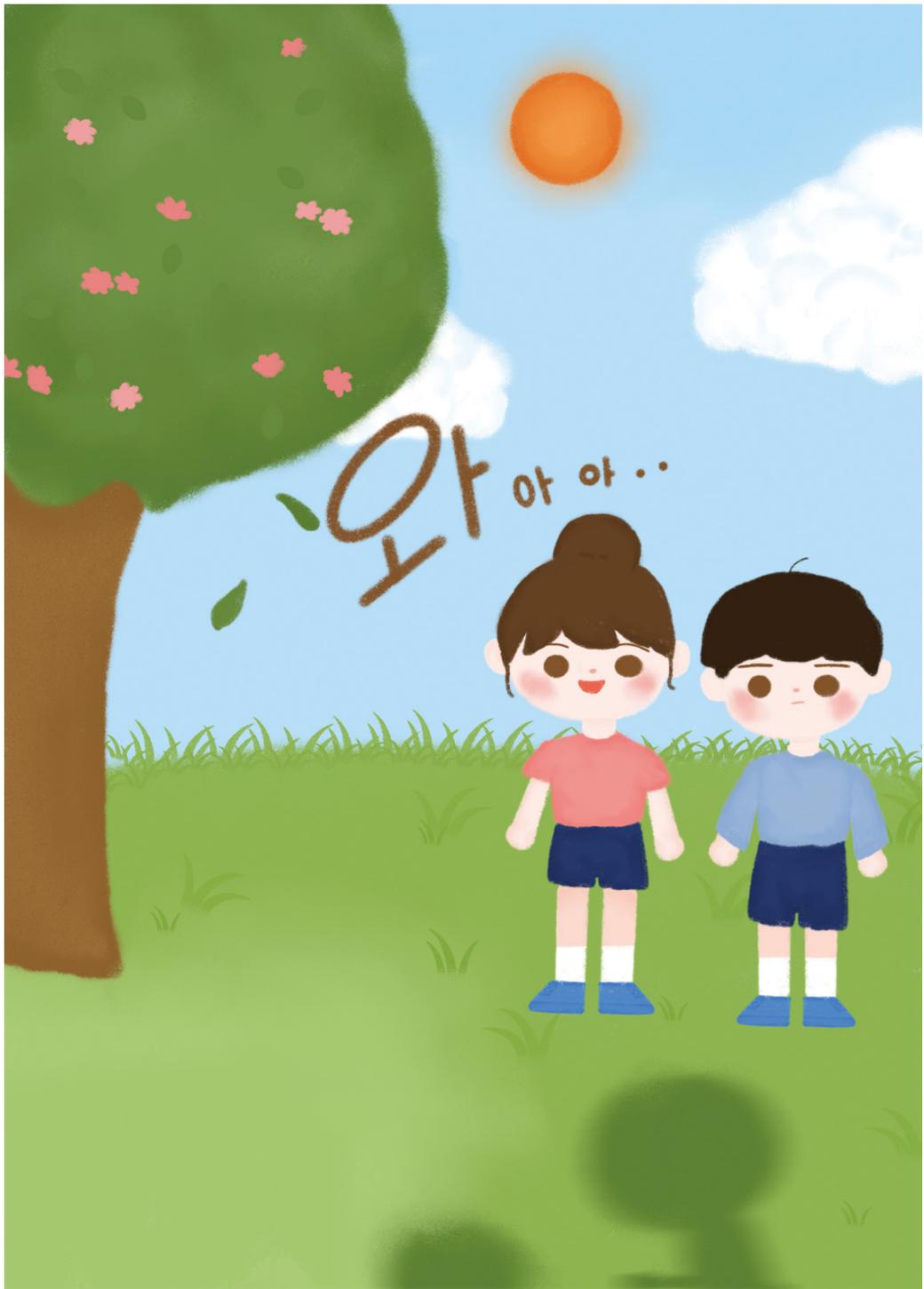


우리는 내일 만날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리스와 어디를 갈지 생각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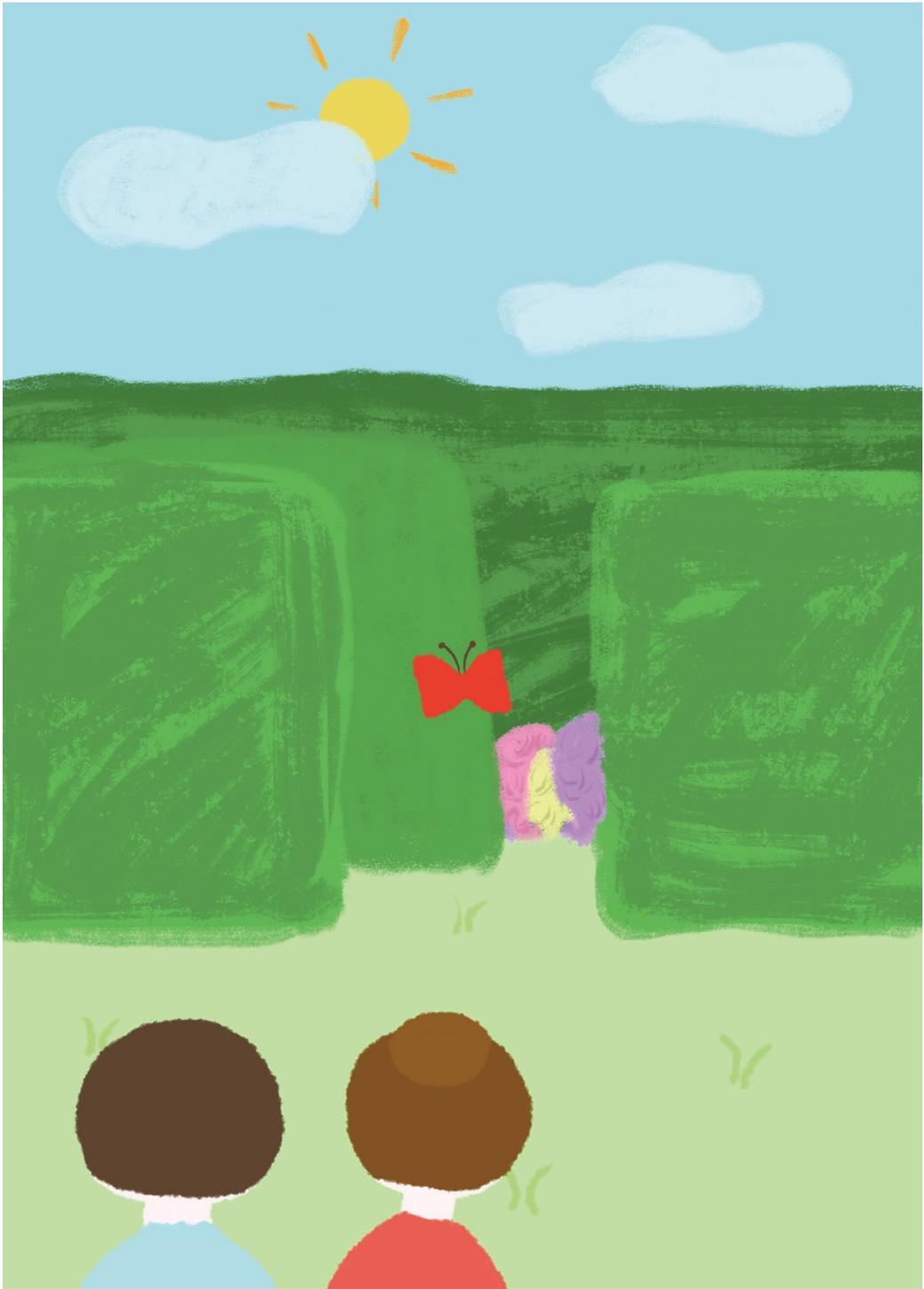
나비오와 함께하는 공원 탐험기



글 김아빈 그림 컴아빈, 유리우, 이에인, 이준서



“와아아, 해돋이 공원이다.”



해음이와 연수 앞에 빨간 나비가 춤추듯 날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빨강 나비를 한번 따라 가보자.”

둘은 알록달록 장미가 가득한 미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어버렸어.”

나비를 따라가던 둘은 바닥에 떨어진 지도를 발견했어요.

~해돋이 공원~

‘파란 장미를
찾아라’

지도에는 ‘파란 장미를 찾아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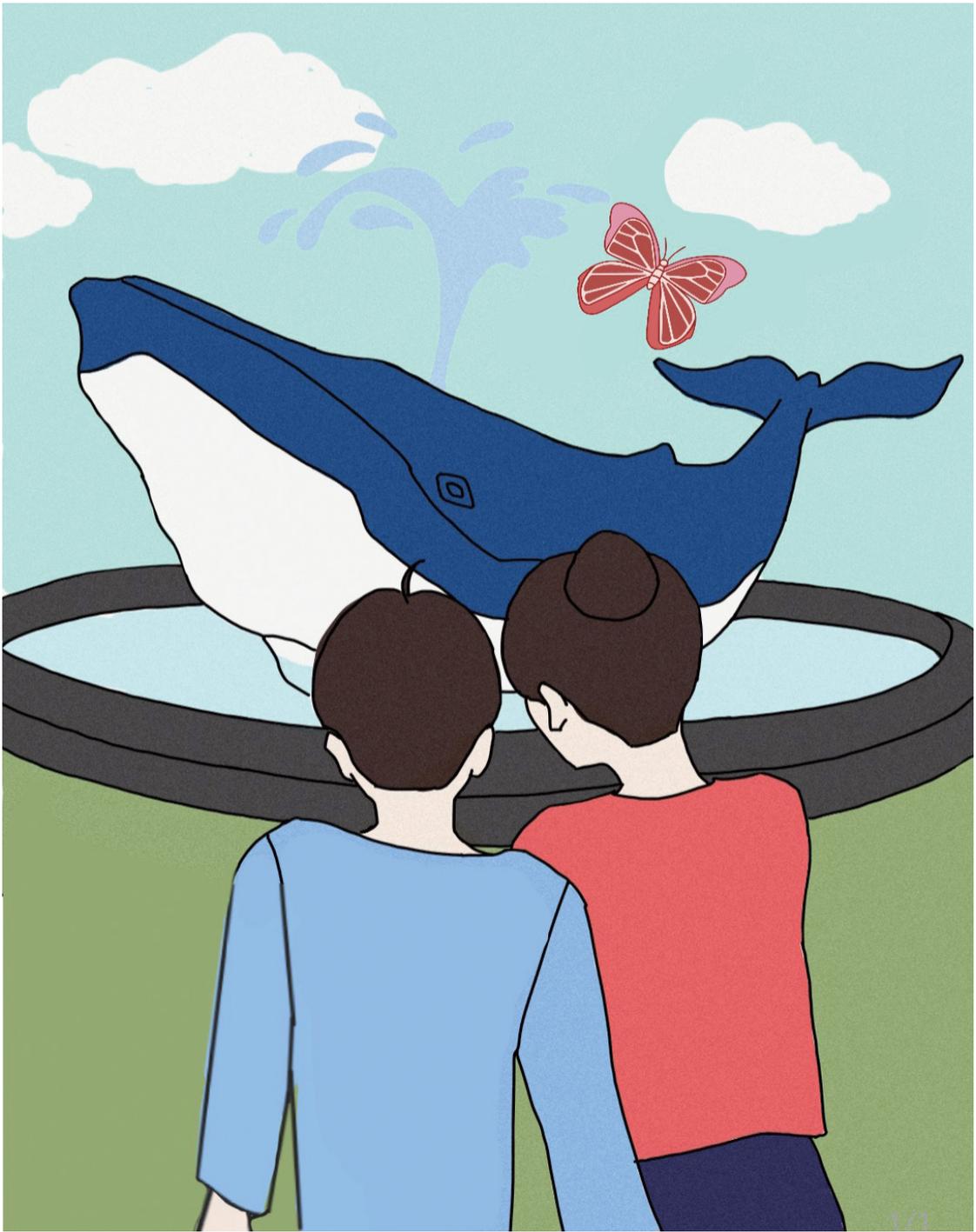
해음이와 연수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파란 장미가 있어!”

연수가 풀잎 사이에 숨어 있던 하늘처럼 파란 장미를 발견했어요.



“여기 봐! 지도에 장미 미로가 나타났어.”
그리고 ‘파란 물을 찾아라.’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파란 물이네. 어떻게 해야 할까?”
둘은 계속해서 미로를 따라 걸었어요.



장미 미로 밖으로 나온 해음이와 연수는 물줄기가 반짝이는 고래 분수를 발견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해음이는 컵에 물을 담고 장미잎을 떼어 휘휘 저었어요.

장미잎을 저을 때마다 물결이 하늘빛으로 물들었어요.

~해돋이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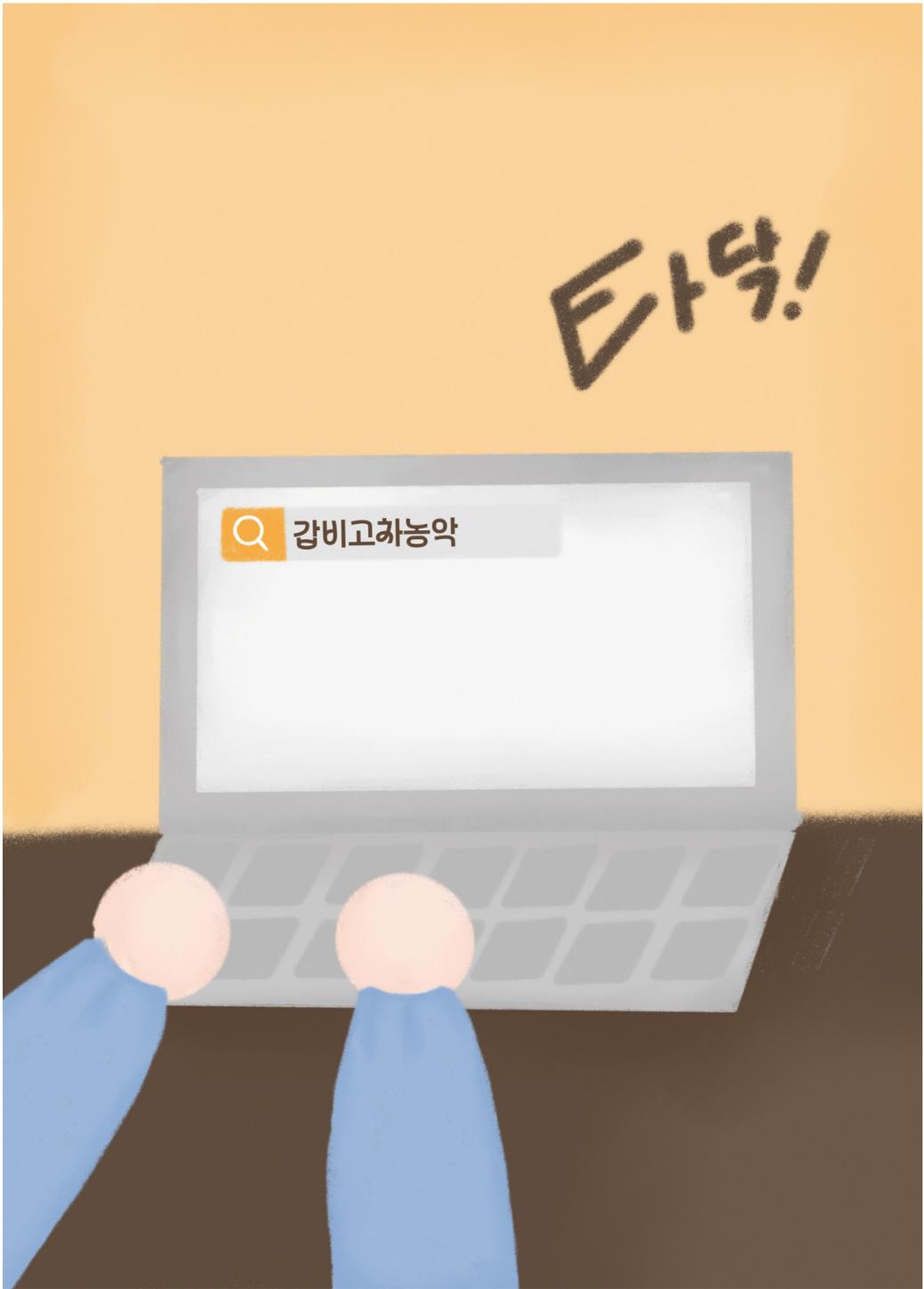


'갑비고차농악 책을 찾아라'



고래 분수

그러자 지도에 고래 분수와 '갑비고차 농악이라는 책을 찾아라'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해돋이 도서관에 도착해 ‘갑비고차 농약’을 검색해 보았어요.



해음이는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갑비고차 농악」을 찾아냈어요.

~해돋이 공원~



'갑비고차농악을 재현해라'



해돋이 도서관



고래 분우

“지도에 도서관이 나타났어!”

잠시 후 지도 위에 ‘갑비고차 농악을 재현해라’라는 문구도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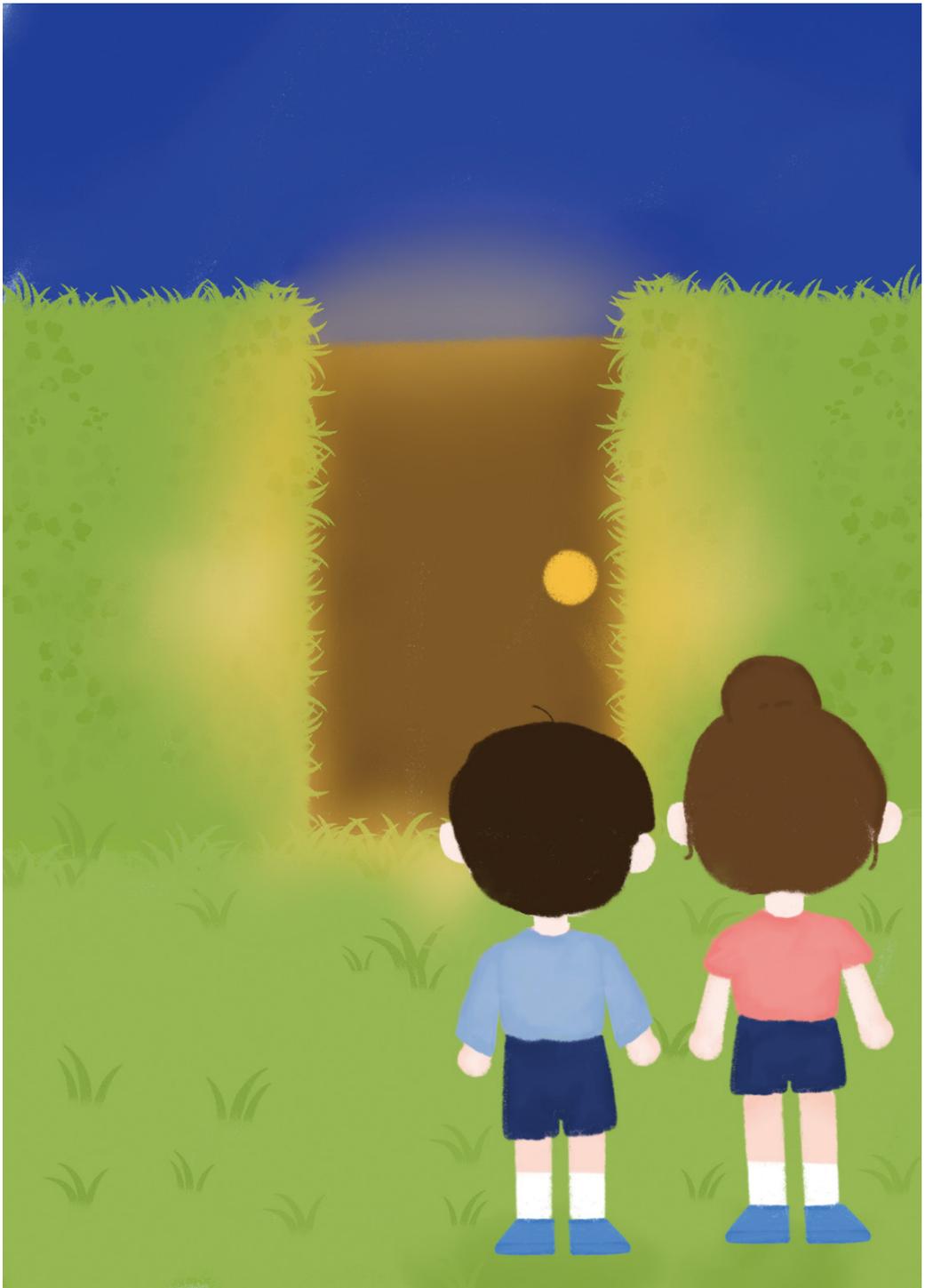
둘은 잔디 광장으로 가서 책을 살펴보며 갑비고차 농악을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돋이공원 지도 완성'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저길 봐, 빨강 나비가 다시 나타났어!”
빨강 나비는 우리를 황톳길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함께 황톳길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황톳길 끝에 다시 장미 미로가 나타났어요.



“해음아, 저기 반짝이는 별뚱별이 떨어지고 있어!”



해음이와 연수는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빨강 나비가 우리를 출구로 안내하고 밤하늘로 날아갔어요.
나비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도착한 우리는 잠이 들었어요.
design 김아빈, 이예인, 이준서

그림책 만들기를 마치며

<송도 퀘스트 깨기 투어>

인천해송중 1학년 4반 김나연

이번에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를 하며 송도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하고 알아보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물론 글 쓰는 것과 그림 그리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과 나의 숨겨진 내면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송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유산들을 더 많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4반 김재은

송도 센트럴파크와 G타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림책을 만들다 보니 송도가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이곳이 고작 공원, 빌딩, 박물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자료 조사와 현장 탐구를 거듭하다 보니 각각의 매력과 특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단지 공원을 뛰어넘어 도심 속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쉼터가 되어줬고, G타워는 빌딩을 넘어선 송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전망대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확장된 세계에서 3개의 문자 박물관 중 하나인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면서 송도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유익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평행선과 같은 서로 다른 생각을 교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4반 김태희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그림책 만드는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겪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때와 어렵고 힘든 글쓰기를 할 때, 내 주위에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출 기한을 미룰 때도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노력했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만들면서 친구들과의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글을 쓰는 실력도 많이 길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4반 손채원

나는 평소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우리 동네인 송도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림책을 제작하며 소개할 곳을 조사하고, 이야기를 구성하고,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며 송도의 특색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가 단순한 도시를 넘어 국제적인 통합, 역사와 문명, 휴식, 교육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질 찬란하게 반짝이는 미래를 꿈꾸는 특색을 지닌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싹튼 우정과 최선의 방안을 의논하며 협동한 기억 등 즐거운 순간들이 제작 과정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이고, 그 결과를 통해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제작할 때 한순간이라도 노력 없이 지나치지 않았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연과의 조화, 미추홀공원>

인천해송중 1학년 3반 아이다나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무척 힘들었지만, 완성했을 때는 즐거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신 우리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추홀공원에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3반 박세형

송도 국제도시에는 친환경적인 도시와 공원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그림책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저는 미추홀공원의 아름다움과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문화의 조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미추홀공원에 대한 자부심과 공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3반 김지안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쁩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장소들을 알아보니 각자만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우리 동네를 둘러보며 멋진 장소를 찾아다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3반 김서영

이번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완성하니 뿌듯했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3반 신윤솔

인천 송도에 대한 여러 곳들의 아름다움과 유래를 알게 되어 재미있었습니다.

<나비와 함께 하는 공원 탐험기>

인천해송중 1학년 5반 김아빈

이번 활동을 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고,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5반 유리우

이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한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5반 이예인

책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친구들과 만든 결과물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인천해송중 1학년 5반 이준서

그림책을 만든다는 활동을 처음 들었을 때는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즐거운 경험을 쌓고, 해돋이 공원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활동을 또 하고 싶습니다.

마치며_인천해송중 교사 장순화

2학기 시작과 더불어 그림책에 관심이 보인 1학년 학생들과
'일상 속 우리 동네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급 학생들이 아니라서 모이는 시간도 정하기 어렵고,
중학생이다 보니 하교 후 학원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과
2학기 1회 고사와 10월 추석 연휴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반별로 우리 동네의 공원 중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 센트럴파크'를
선정하여 직접 공원을 탐방하고, 사진도 찍고, 단톡방을 만들어
글과 그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반별로 특색있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림을 완성하여 그림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자신이 맡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그림책을 빨리 받아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해돋이공원까지, 송도를 걷다

초판 인쇄 2025년 11월 24일

초판 발행 2025년 12월 1일

글 / 그림 김나연, 김재은, 김태희, 손채원, 아이다나, 김서영, 김지안,
박세형, 신윤솔, 김아빈, 유리우, 이예인, 이준서

지도교사 인천해송중 장순화 선생님

기획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펴낸곳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제작 오리너구리

© 김나연, 김재은, 김태희, 손채원, 아이다나, 김서영, 김지안, 박세형, 신윤솔, 김아빈,
유리우, 이예인, 이준서,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 시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